









한정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세’의 유형

The Box 에릭 켈러만



하나의 박스 안에서는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건을 넣어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자’. 하지만 에릭 켈러만의 상자 속엔 물건이 아닌 다양한 피부와 머리카락에 각기 다른 몸짓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스스로의 몸에 대단한 자부심을 보이는 그의 모델들은 무용가나 곡예사 등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동작들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해낸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 최신지 기자



에릭 켈러만 Eric Kellerman

사진작가 에릭 켈러만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생의 반 이상을 네덜란드에서 생활하며 사진 작업을 해왔다. 그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Portable Landscapes〉, 〈Some body〉 등 다수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SHUTR〉, 〈ADORE NOIR〉, 〈The Photo Paper〉, 〈Black & White Magazine〉, 〈Art-Photo-Akt〉 등 수많은 잡지를 통해 작업을 공개했다. 오는 2014년 12월 네덜란드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www.erickellermanphotography.com

다양한 주제로 누드 사진작업을 하며 인간의 ‘몸’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 같다.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내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독자들이 읽다 잠들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의 몸에서 나타나는 곡선과 그림자는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 생각한다. 어릴 적 나는 풍경사진을 주로 찍었다. 길을 걸을 때면 선과 곡선, 그림자, 빛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건물들을 눈여겨보고 다녔다. 하지만 그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좋은 장소를 찾아가면 항상 문제가 생겼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이 오는 등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스튜디오 안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최고의 풍경을 촬영하고 싶어졌다. 야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또 여성의 몸이 아름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의 몸을 주제로 작업하는 화가, 조각가처럼 나 역시 다양한 시대의 예술가들 중의 한 명일 뿐이다.

〈The Box〉에서 ‘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성의 몸을 촬영하지만 전혀 에로틱하지 않은 이미지, 추상적이고 우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여성 무용가, 곡예사들과 함께 작업했으며 명암의 조화나 선 또는 기하학적인 형태, 질감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작품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람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몸의 어느 부분인지 모호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 또한 이 작업은 여성을 단순한 그들의 몸에서 해방시키려는 작은 시도이기도 하다.

시리즈 〈The Box〉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2009년 시작된 작업이다. 〈The Box〉는 젊은 여성들의 물리적인 힘이나 동력, 창조력 등을 이미지로 나타낸다. 보통의 귀여운 소녀들이 등장하는 누드 사진과는 확연히 다르다. 박스라는 제한된 공간에 인간의 몸을 배치하는 하나의 설치 작업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지난 2012년 11월에 출판된 사진집을 통해 공개됐다. 독일에서 출판된 이 책은 실제 목재 박스에 포장돼 판매됐다. 앞으로도 이 작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상자 속에 들어앉은 모델들의 포즈가 무척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들의 몸짓과 박스에 얹힌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 상자는 1 x 1m, 깊이 50cm로 만들어졌다. 측면과 상단에 두 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는 모델들의 손이나 발을 지탱해 이들이 포즈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박스는 모델들이 포즈를 취해야 하는 만큼의 공간을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이 상자 없이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작품 속의 모델들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델들보다 신체적인 표현력이 크게 부족할 것이다. 이들은 댄스, 무술, 요가, 운동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실행해온 예술가들이며 스스로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델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미소만 짓고 있는 사진도 꽤 흥미로울 것 같다.

작업 과정을 설명한다면.

〈The Box〉의 작업 과정은 지극히 평범하다. 촬영은 완전히 디지털화 된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 Canon 5D Mark II와 Hasselblad H3D-39를 이용해 RAW파일을 만들고 이를 포토샵으로 불러와 간단한 보정을 한다. 모든 작업 과정을 간단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컬러를 제한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실 이 시리즈 안에는 꽤 많은 컬러가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흑백사진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가끔은 색을 이용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한 가지로 규정짓지 않고 작업한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피부 등 흥미로운 컬러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 이미지화하는 편이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지난 2005년 12월 서울을 방문했다. 언어 관련 학회로부터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다. 당시 나는 네덜란드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한국에서 관광을 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김치를 매우 좋아해 김치 박물관을 들렸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때 다양한 한국의 음식을 맛본 것도 매우 멋진 체험이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길에서 지도를 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또 한국 여성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 ■

